

通信使의 새로운 시각

정 장 식 *

(e-mail : joshua@cju.ac.kr)

目 次

- 一. 序
 - 二. 倭에 대한 부정적 시각
 - 1. 先入見과 공포심
 - 2. 뿌리 깊은 先入見
 - 3. 문화적 우월감
 - 三. 일본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시각
 - 1. 문화 교린외교의 변화
 - 2. 새로운 시각
 - 3. 사행의 실상과 개혁의 목소리
 - 四. 結論
-

一. 序

조선이 일본을 보는 시각이 淸日外交에서 중요한 動因 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일본관계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조선 前期에 왜구 침략과 대책 및 그에 대한 상벌이 3,142건이나 기록된 것을 볼 때, 고려의 뒤를 이어 조선은 왜구 문제 해결에 무척 고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신 파견과 일본 사절의 왕래가 2,765건인데, 이것도 왜구 문제를 외교로 풀어보려는 조선의 苦心을 말하는 것이었다.

* 청주대학교 교수, 일본학

조선 前期에는 왜구를 通交者로 등록시켜 관리하려 애썼으나, 대마도는 이러한 조선의 약점을 이용하여 通交貿易 틀 안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조선 後期에는 임진왜란으로 붕괴된 교린체제를 재건하려고, 통신사 파견과 왜관 무역을 통하여 일본(대마도)을 통제하려고 고심하였다.

일본은 왜구와 임진왜란으로 조선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조선은 대일외교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그 중에서 경제적 부담도 크고 국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통신사 파견이었다. 조선은 통신사를 파견하면서 문화사절단이라 자부하였으나, 일본은 은연중에 통신사를 ‘朝貢使’로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괴리는 自國의 외교 사상에 바탕을 두었으나, 현장에서 활동하였던 통신사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치욕적인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의 士大夫들은 힘들고 먼 燕行 길을 다녀와서,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였던 明朝에 대한 회고와 오랑캐가 중화문명을 계승한 것에 대한 反感으로 복잡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대체로 燕行使들은 오랑캐가 중화문명을 계승하고 있는데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편리한 淸의 문물을 받아들여 利用厚生할 것을 주장하였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충성스런 외교 활동을 강조하며, 가슴 속에는 倭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을 품었으나, 일본의 번성한 ‘市井과 物力’을 보면서 감정은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는 국가의 명예를 잃어진 외교사절이었으므로, 귀국 후 복명할 때는 자신들의 사적인 감정이나 활동은 되도록 감출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행록은 일본에 대한 선입견의 필터를 거쳐, 외교사절이라는 직책에 맞는 정제된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행록을 읽다보면 대동소이한 외교활동 기록과 일본을 멸시하는 사례들로 짜여있어서 대체로 지루한 느낌이 든다.

통신사들도 ‘倭 倭寇’를 혐오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을 教化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自負하였으나, 일본의 현실을 둘러보니 반드시 오랑캐라고 폄하할 것만은 아니었다. 일본의 현실은 조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유교 질서와 다를 뿐이었지, 일본인들의 행동에는 節度가 있었고 모든 문물이 정갈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통신사는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700년대 초반까지 사행록은 전반적으로 무미건조한 기록에 충실하였으나, 行間에는 일본을 보고 느낀 私的인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출한 것도 있었다. 이러한 기록을 읽어보면, 선입견의 洗禮로 일본은 싫어하였지만 일본의 발달된 문물에 자극받아, 우리의 대일외교를 再考해야 한다는 自省의 목소리와 아울러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각도 있었다.¹⁾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재조명해 보는 것도 앞으로 양국관계 개선에 示唆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二. 倭에 대한 부정적 시각

1. 先入見과 공포심

조선은 일본을 외교문서에서는 ‘日本’이라 불렀지만, 흔히 ‘倭’로 卑下하였다. 이 말은 그들의 야만성에 대한 멸시감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포심도 담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한반도를 노략질한 왜구에 대한 공포심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에 일본을 ‘왜구의 소굴’ 쫓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한반도를 괴롭히던 왜구의 노략질은 고려 말에는 더욱 극심하였다. 왜구는 1373년에 한강 어귀까지 진출하여 漢陽府에서 약탈과 살상을 자행하더니, 드디어 海州까지 침입하여 牧使를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1380년 8월에는 왜선 500척이 충남 서천군에 들어와 약탈과 살상을 자행하였더니, 왜구에 대한 공포심은 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다.

결국 왜구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고려는 망하였고, 왜구 격파에 공을 세운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지만 조선 초기에도 왜구는 조정의 큰 걱정거리였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下三道 해안 방비에 힘썼으나, 약탈과 납치를 자행하는 왜구를 피하여 사람들은 下三道 해안 지대에 살지 않으려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왜구에 대한 공포와 증오심은 널리 퍼져 있었다.²⁾

1443년에 왜구 금압을 요청하려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는 倭에 대한 통찰과 아픈 역사를 알고 있었기에, 『海東諸国記』를 찬술하며 序文에서 왜인에 대한 경계와 회유를 다음과 같이 간곡히 주문하였다.

(그들은) 습성이 몹시 날래고 사나우며 검술에 능숙하며, 배 다루는 데도 익숙한데다가 우리나라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게 되니, 그들을 달래되 제 도리대로 하게 되면 예를 갖추어 수호하게 되려니와, 제 도리에 벗어나게 되면 문득 노략질을 함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왜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三浦로 건너와 사는 것을 묵인하자 三浦에는 절과 祠堂까지 갖춘 ‘倭人村’이 형성되었다. 이들을 몰아내면 다

1) 박재금 「원증거의 『和国志』에 나타난 일본인식」.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0. p.31-64

하우봉 「원증거의 일본인식」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7. p.323-397

2) 당시 국경을 넘나든 왜구는 양국의 ‘境界人’이었다는 견해도 있으나<村井章介(1993) 『中世倭人伝』 岩波新書>, 왜인이 왜구의 중심 세력이었다는 조선에서의 인식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시 노략질로 남변을 어지럽힐 것이 걱정이었다. 즉 조선은 倭와 교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원하지 않았고, 利得이 안 되는 倭人의 來朝도 가능하면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3)

조선이 왜인들을 관대하게 대하자 왜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세월이 흐르자 신속주의 걱정이 다시 현실로 나타나, 1510년 4월 三浦에 살던 왜인들이 대마도의 무력을 배경으로 三浦倭亂을 일으켰다.

당시 조선에서는 대마도를 일본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보았다.⁴⁾ 그래서 조정은 대마도의 호구지책을 해결해 주면 남변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회유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에는 조선의 약점을 악용하려는 왜인들의 오만방자함과 폐해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⁵⁾

조정은 왜인에 대해 회유책을 쓰면서 왜구에 대한 방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豊臣秀吉의 조직적인 침략을 예견치 못하여 왜란의 兵禍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국가의 기반마저 흔들렸으니, 백성들의 마음 깊이 새겨져있던 倭에 대한 공포와 증오심은 증폭 되었다. 왜란 후, 조선에서 自省의 의미로 간행된 『懲毖錄』 『看羊錄』 등의 왜란 기록이 왜란 초기에 조선이 당한 패배와 왜군의 만행을 강조하였으므로, 倭에 대한 공포와 적개심을 더욱 증폭 시켰다.

이와 반대로 왜군은 초반의 승세로 평양까지 진격하였다가 많은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지만, 일본에서는 ‘朝鮮征伐’에 참전하였던 武將들의 武功을 기린다면 「戰記物」을 많이 간행하여, 이러한 서적들도 조선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加藤清正의 호랑이 사냥(加藤清正の虎狩)」으로, 加藤清正是 해외에서 武勇을 떨친 사무라이의 모델처럼 여겨져 왔었는데, 이러한 전설의 바탕에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 우월감이 깔려있었다.⁶⁾

대마도에서 대조선 외교를 오랫동안 담당하였던 雨森芳洲(1668-1755)는 倭館에 있던 왜인들의 횡포를 보고 『交隣提醒』에서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무력에 대한 조선의 경계」에서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3) 조영빈 정두희(1981) 「조선초기 支配層의 日本觀」 전북대 인문논총 9. p.24

4) “이 섬이 원래 왜국에 딸린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있어서 왜국을 빙자하여 우리에게 요긴한 체하고, 우리를 빙자하여 또 왜국에게 요긴하게 보이는, 박쥐 구실을 하여 스스로 이로움을 취하는 바, 토벌하여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택리지』 [이중환 저. 이익성 역 (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p.66]

5) 왜인들이 왕래할 적에 경상 一道가 여러 가지로 많은 폐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그리하여 그곳 백성들이 倭奴만 없으면 人馬가 좀 편안해 지겠다고 합니다. 왜인들 또한 나라에서 교린의 의리 때문에 후하게 접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수령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들을 구타하는 등 모욕적인 일이 그치지 않습니다. 교린의 도리가 중대하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폐단 또한 작지 않습니다. (「중종실록」 37년 8월 5일)

6) 旧參謀本部編纂(1995) 『日本の戰史 朝鮮の役』 徳間書店 p.431-433

왜관이 두모포에 있을 무렵까지는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으로 인한 전후의 여위(余威)라는 것이 남아 있었다.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조선인에게 생트집을 부려서 밀어두면, 역관들은 그들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 나머지 중간에서 무슨 일이건 좋은 결과를 맺도록 주선하여, 되지 않을 일도 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포악스럽게 으르렁거리서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들 알고 있었다. <중략> 4~5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인이 칼을 뽑으면 조선인이 벌벌 떨고 도망을 갔다.

(한일관계사학회 편 『交隣提醒』 p.45-46)

왜관의 깊은 상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어서, 日本通이라는 역관들마저 왜인을 이렇게 무서워하였으니, 왜란 후에 講和가 성사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통신사들도 ‘倭’라는 선입견으로, 공포와 증오에 찬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뿌리 깊은 先入見

秀吉의 사망과 왜군의 퇴각 그리고 대마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講和가 성립되었으나, 조선은 일본과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과 강화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다. 종묘사직을 위협하다 못하여 陵墓까지 훼손하였고, 또 죄 없는 백성들을 수 없이 잡아간 ‘倭’를 “한 하늘 밑에 살지 못할 원수”로 여겼다고, 宣祖는 ‘日本国王’에게 보내는 서계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조선을 유린하였던 적과가 죽고 일당은 타도되었으며, ‘일본국왕’이 “前代의 잘못을 고쳤다”며 성의를 보여 왔으므로,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신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사행 목적은 믿음을 나누는 ‘통신(通信)’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국왕’이 보낸 국서에 대한 의례적인 회답과 잡혀간 백성들을 쇠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실 조선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그럴 여유도 없었으나, 한편으로는 일본의 재침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사신들은 “힘하고 먼 시호(豺虎)의 굴”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일본에 갔다.⁷⁾

1607년의 1차 사행 때 사신은 외교 활동 전말을 기록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한편으로는 화려한 접대와 의외로 발달한 그들의 文物에 놀란 나머지 부정적인 시각이 적게 표출되었으나, 1617년의 2차 사행의 종사관 李景稷은 우선 대마도에 대한 적개심을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비록 사신을 맞이하는 접대와 예모가 정성스러워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원수의 땅에 있으니 걸음마져 고통스럽다고 하였다.⁸⁾ 사신은 억울하게 잡혀온 백성들의 쇠환에 진력하였는데, 대

7) 1607년 慶運 『海槎錄』 p.331. / 사행록은 비슷한 이름이 많아 사행 년도와 기록자의 이름을 썼으며, 쪽수는 《국역 해행총제》에 실린 쪽수이다.

마도는 이를 교묘하게 가로막았고, 갈수록 교묘하게 속임수를 부리는 것이 보여서 너무도 가증스러웠다. 거기에서 또 國書를 개작하는 농간까지 부린 것을 감지하였는데, 장군 앞에 나아가 무릎까지 꿇으니 마음과 쓸개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 비분강개하였다.⁹⁾ 그래도 사신은 그들의 여러 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사행록은 외교활동의 요점을 기록하였고, 뒤쪽에 실은 聞見總錄에는 그들이 본 일본의 모습을 잘 정리하였다.

일본과는 講和를 하였지만 침략을 당하여 국토가 유린 되었고, 앞으로도 속내를 알 수 없는 敵性國이었기에, 사신들의 관심은 그들의 心性和 軍事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의 心性을 보니, “俠氣를 숭상하여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잊어버려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문득 칼을 뽑아 서로 죽이기를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며, 잠시 작은 원함이 있으면 스스로 제 배를 갈라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하니 참으로 무서운 心性이었다. 또 그들이 왜란 때 자행한 만행을 생각만하여도 끔찍한데, 왜란 때 베어간 수많은 백성들의 코와 귀를 물어놓은 ‘耳塚’을 전승기념물처럼 여기고 있었으므로, 사신들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幕府는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였지만, 大坂을 지날 때마다 거리가 번성한데 놀라는 한편 그곳이 秀吉의 소굴이었음을 상기하며 끓어오르는 혐오감을 지울 수 없었다.

再侵을 우려하여 그들의 養兵과 行軍을 알아보니 그것도 역시 위협적이었다. “전쟁이 벌어지면 백만 병졸을 아침에 영을 내려 저녁에 출동할지라도 조금도 지체되거나 어긋나는 폐단이 없고, 병졸은 싸울 적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살기 위해 물러나는 것을 욕으로 여긴다”고 하니 무서운 족속들이었다. 나라의 풍속도 “용맹하고 날렵을 높은 취미로 삼고 칼과 창질을 능사로 삼으며, 오로지 戰陣만을 힘쓰고 文教는 일삼지 않는다”는 호전적인 침략성은 또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¹⁰⁾

그래서 사신들은 이러한 군사적인 열등감을 만회하려고, 軍官들로 하여금 強弓을 내게 하여 조선의 武力이 약하지 않음을 과시하기도 하였다.¹¹⁾ 이러한 군사력 示威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 사행에서 馬上才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상재는 1636년 사행 때 막부의 요청으로 무예와 馬才가 뛰어난 2명의 馬上才人을 데려가서 走馬立馬上 馬上倒立 등 8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江戸에서 將軍에게 마상재를 보여주려면 말을 여러 필 水陸으로 수송해야 하는

8) 1617년 李景稷 『扶桑錄』 p.30

9) 앞의 책 p.79

10) 1607년 慶暉 『海槎錄』 p.333-337

11) 일본도 조선 활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1719년 신유한 『해유록』 p.56), 사신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 활이 강함을 과시하였다.(1764년 조엄 『海槎日記』 「筵話」 p.547)

일이 여간 힘들지 않았으나, 조선은 騎馬戰에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며, 군사력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었기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¹²⁾ 조선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무력 위협과 공포심은 사행 횡수를 더해감에 따라 조금씩 완화되었으나, 사신들의 뇌리에서 쉽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다.

3. 문화적 우월감

조선은 고대 일본에 문화를 전해주었다는 우월감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다. 일본 사행의 教範이라 할 수 있었던 『해동제국기』도 일본 史書를 인용하여 「天皇世系」에서, “(欽明天皇 때)백제에서 五經博士와 醫博士를 보내왔고, (推古天皇 때)백제의 중 관료가 와서 曆本 天文 地理 등 서적을 바쳤다”고 상고 하였으니, 조선의 우월감은 이미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박혀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儒學을 보는 눈도, “姜沆이 4년 동안 잡혀있었는데, 그 때 순수좌(舜首座: 藤原惺窩)란 승려와 상종하여 놀면서 비로소 문교를 열었다”며, 일본 儒學도 왜란 이후 조선이 가르쳐 주었다고 자부하였으니, 사신들의 復命에는 일본을 문화 후진국으로 폄하하는 것이 하나의 정해진 패턴이었다.¹³⁾

그래서 사신은 일본의 야만적인 文化를 강조하려는 듯, 冠婚喪祭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일본의 祭禮는 조선이 배척하던 불교 의식이었고, 그들의 혼인은 “같은 姓氏를 피하지 않아 사촌 남매끼리도 서로 시집가고 장가들고, 異母 및 형수와 형의 첩은 그 아비와 형이 죽으면 계통을 전한다 하여 데리고 산다”하니 도무지 짐승 같아서 언급조차 하기 싫었다. 의식주가 다른 것은 어찌 할 수 없겠으나, 남녀가 유별하지 않고, 결혼한 여자가 치아를 검게 물들이고, 또 피부에 문신을 하는 풍속은 너무 야만적이어서 대개의 사신들에게 거부감을 주었다.

일본 사행은 애당초 조선의 의도에 반하여 막부와 대마도가 기획 연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사신은 제반 행사 진행에 불만이 많았다. 출발이나 휴식까지도 대마도의 안내와 지시를 따라야 하는 긴 여정에 사신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마도는 사행을 무사히 안내하는 데 섬의 死活이 걸려있었으므로, 막부의 눈을 의식하여 때로는 무리한 요구로 사신들과 의견 충돌이 잦았다. 이러한 충돌의 바탕에는 ‘왜인’에 대한 불신과 문화적 우월감이 깔려있었으므로, 사신들은 자존심이 상하였다고 크게 분노할 때가 많았다. 사

12) “저들이 조선의 馬上才의 다소에 대해 물으므로, 역관은, 우리나라의 군병으로 馬才에 능한 자가 이루 셀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앞의 책 p.73)

13) 앞의 책 p.312

신들은 오래 전부터 대마도를 경멸해 왔었는데, 그들이 막부의 힘을 배경으로 狐假虎威하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들과 한 통속으로 놀아나는 “深處倭”도 한 무리로 보여, 오히려 불신감과 문화적 우월감을 증폭시켰다.

사신이 본 일본의 풍요로움은 대마도부터 달랐다. 오랜 전쟁과 궁핍한 섬 사정으로 모든 것에 窮氣가 돌아야 할 터인데, 島主의 생활과 사신 접대는 의외로 화려하였다. 이것은 오랑캐가 무식하여 걸만 꾸미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江戸로 갈수록 화려함은 더하였다. 이것을 본 사신들은 감탄하며 찬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들의 화려함을 ‘개발에 주석편자’ 짚으로 치부하며, 부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기까지 하였다.¹⁴⁾

이러한 문화적인 우월감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곳은, 일본의 수려한 경치를 본 소감이었다. 신선이 놀만한 神仙景이나, 洞庭湖나 岳陽樓를 능가하는 경치를 보며 부러워하다가도, 가치도 모르는 오랑캐 땅에 絶景이 있음을 탄식하였다.¹⁵⁾ 일본은 조선과 반대로 무를 숭상하여 학문하는 자가 적어서 “오직 중들만 문자를 조금 익혀서, 대소 장군의 書記 임무는 모두 중을 쓴다”며, 일본의 학문 수준이 낮은 것을 강조하였다.¹⁶⁾

외교의 場에서는 筆談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詩文唱和로 상대의 교양 정도를 떠보는 것이 중요한 외교 활동이었다. 한문으로 나누는 필담과 詩文唱和 자리에서 사신은 물 만난 기러기 같았으니, 일본에서 선발되었다는 외교승도 한 수 아래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사신들은 漢詩文으로 일본의 학문 수준을 평가하여, “위로 천황부터 아래로 서민까지 한 사람도 유식한 자가 없다”고 폄하하였다.¹⁷⁾ 대개 사신이 일본의 학문 수준을 낮게 보았으므로, 자신들이 외교 활동에서 詩文으로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자랑하였으나, 일찍부터 그들의 이면을 예리하게 파악한 경우도 있었다.

대개 일본 나라는 용맹과 武만 오로지 숭상하여 인륜을 모르지만, 節義의 일을 보게 되면 감탄하여 일컫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또한 天理인 본연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607년 경섭 『海槎錄』 p.338)

여기서 “인륜”은 유교 도덕을 말하며, “節義의 일”은 포로로 잡혀가 조선인의 절의를 보여주었던 강항과 송상현의 첩을 말하는 것이었으니, “節義의 일”

14) 신유한은 島主 저택으로 초대 받아 文士들과 교류하는 자리에서, 자신은 京官이고 島主는 藩臣이므로, 島主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며 대마도의 非禮에 분개하는 우월적인 태도를 보였다. (1719년 신유한 『해유록』 6월30일)

15) 앞의 책 p.504

16) 1607년 경섭 『海槎錄』 p.338

17) 1624년 강홍중 『東槎錄』 p.285

를 보게 된다는 것은 조선이 모범을 보여주면 일본인의 성품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1719년 사행의 제술관 申維翰도 그들의 호전적인 습성이 모두 먹고 살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한 가닥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중화문명에 대한 希求가 있음을 감지하였던 것이다.

대개 그 법령이 사람을 몰아넣기를 이와 같이하고, 衣食의 나을 데가 다른 길이 없으므로 그들이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義를 위해 그런 것도 아니요, 또 타고난 성질이 그런 것도 아니라, 실은 스스로 제 몸을 위해 그러한 것이다. (『海游錄』 下 <聞見雜錄> p.55)

풍속이 글씨와 그림을 좋아하여 비록 귀족의 집이나 민간에서 비록 글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도 반드시 중국 사람의 글씨와 그림을 구하여 병풍을 만들어서 보물로 삼는다. (『海游錄』 下 <聞見雜錄> p.63)

그렇다면 일본을 教化하면 이웃의 불안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일본에 文教가 일어나지 않음은 “만일 문교를 일삼는다면 兵政이 해이해져서 도리어 弱國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일본이 문교를 배척한다는 것이었다.¹⁸⁾ 이것은 바로 조선의 약점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 조선이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으로 무엇을 강조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하는 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三. 일본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시각

1. 문화교린외교의 변화

왜란 후 조선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면서도 믿음을 주고받는다. ‘通信’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탐적사’ ‘회답사’ ‘쇄환사’라고 부르다가 1636년 사행부터 ‘通信使’라 부르며 일본과 정상적인 교린 관계를 수립하였다. 당시 조선은 북변에서 氣勢를 올리던 後金과 남변의 불안 요인인 일본에 끼어 ‘北虜南倭’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큰 과제였다. 일본은 당장 위협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야만성 때문에 남변이 불안하였고, 북변 오랑캐는 조선을 수시로 위협하였으므로, 우선 일본과 和好하여 남변의 안전을 확보해야 북변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었다.

18) 1607년 경섭 『海槎錄』 p.339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교린 관계를 수립하며 조선이 우월감을 가지고 일본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유교 문화를 일본에 전해 주는 것이었다. 그간 사신들의 복명에는, 일본의 지식인들은 사신과 교류하기를 고대한다 하였고, 일본의 수준 낮은 文教를 강조하였으므로, 1636년 사행부터 조선은 문화교린정책을 이행하려고 吏文學官을 동행하였고, 書畫에 뛰어난 寫字官과 畫員도 증원하여 일본과 본격적인 문화교류 태세를 갖추었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에게 문화적 갈등도 있었지만 유행 같은 군중심리로, 서민부터 상류층까지 사신의 서화를 받으려고 모여들었을 것이다. 사신들은 이러한 모습에 만족하며, 일본에 조선 문화의 우월성을 알리는 것이 교린의 한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1636년 사행 때 林羅山은 筆談唱和를 하며 副使 金世濂에게 孔子의 학문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조언을 구하자 金世濂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 공부하는 순서는 格物 致知 誠意 正心에서 平天下에 이르며, 그 윤리는 父子有親에서 朋友有信에 이르며, 그 제도는 冠婚喪祭이며, 그 글은 詩經 書經 易經 春秋인데, 성인의 道가 갖춘 책에 있으니, 돌아가서 그것을 탐구하면 절로 스승을 얻게 되는 것이오. (1636년 金世濂 『海槎錄』 12월 13일)

金世濂은 막부 최고의 유학자에게 유학에 입문하는 기초적인 조언을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유학 수준이 낮다는 인식에서 나온 고자세였다. 金世濂은 林羅山の 기타 질문이 수준 낮다고 핀잔까지 주었으나, 林羅山은 사과하며 사신의 인적사항을 물었다. 사신이 이러한 문화교린활동을 자랑스럽게 복명한 것을 보면, 사신은 자신들의 문화교린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林羅山은 막부의 외교 문서를 관장하는 중책을 맡아 대조선 외교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으니, ‘수준 낮다’는 질문은 정보 수집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¹⁹⁾ 그러나 金世濂은 귀국 후, “일본에서는 林羅山の 글이 제일이었으며, 理氣. 性情 등의 말을 물으니 야만이라고 알볼 수 없다”고 복명하며 일본 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사신은 일본의 학문 수준을 알잡아 본 나머지, 1711년 사신도 일본을 무시하며 유학과 중국 일변도의 학문을 說論하였다. 우선 사신은 일본에 전해져 내려온다는 古文尚書를 왜 등사하여 세상에 내놓지 않는냐며, 일본이 古文尚書에 어두움을 힐난하듯이 깨우쳐 주었다. 이를 답변하던 新井白石(1657-1725)이 서양 사정을 아느냐고 反問하자 사신은 답변에 궁하였다.²⁰⁾ 사신들은 新井白石의 당돌한 질문에 반격을 가하고자, 조선이 중화문명의 정통성을 잘 지킴으로 清朝도 조선을 존중하니, “지금 귀국의

19) 林羅山은 조선이 일본을 무시하여 品階가 낮은 사신을 파견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20) 1711년 林守幹 『東槎日記』 〈江閔筆談〉

문교가 바야흐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변하리라는 뜻에 깊이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일본도 중화문명을 조선에게 배울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동양 고전에 박식하며 서양 사정에도 밝은 新井白石에게는 조선이 자랑하는 중화문명의 정통성이 중화문명의 퇴적물처럼 여겨져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新井白石은, 조선이 아직도 大明 의례를 고집하는데, 清朝에 복속하면서 明代 문화 정통성을 자랑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은근히 비꼬았다. 그러면서 新井白石은, 조선이 일본의 崇武 정신을 비하하고, 은연중에 조선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우쭐대지 말고, 두 나라가 대등 화평 간소하게 교린하자고 주장하며, 신숙주가 『해동제국기』 序文에서 강조한 것처럼 “두 나라의 진정한 친선을 잃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조선이 문화우월주의로 일본을 가르치려는 자세를 보여 왔는데, 이제는 진정한 교린을 위하여 우월한 자세를 버리고 상호주의로 나올 것을 당부한 것이었다. 이러한 新井白石의 반박은, 조선의 문화우월성이 이미 일본에서 빛바래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선의 문화우월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였다. 아울러 新井白石은 양국의 처等한 관계를 주장하며, 일본 천황과 清朝의 天子를 처等하게 놓고, 幕府將軍을 日本国王으로 하여 朝鮮国王과 대등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조선을 일본보다 낮추어 보려는 의도였다. 21)

1719년 신유한이 관찰한 일본의 문화 수준도 그리 낮은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大坂의 書肆를 살펴보니, 조선이 일본에 감추어야 할 책까지 팔고 있었고, 長崎를 통하여 중국의 서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으니, 이러한 수준을 보며 야만이라고 비하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불합리한 세습제 때문에 우수한 문사들이 빛을 보지 못하여 일본의 학문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신유한은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일본 문사들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신들은 일본의 漢詩文 수준을 비웃어왔으나, 신유한은 간혹 수준 높은 文士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이 한문을 배우려는 노력도 대단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漢詩文 수준이 낮고, 시문의 평측(平仄)이 맞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니, 일본어와 한문의 구조적인 차이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시문에 통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²²⁾ 그러면서 신유한이, “일본 사람이 조선의 문학을 사모하나 風氣가 각각 달라 배워서 능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는 스스로 日本文을 하는 것만 못하다”(『海游錄』 9월 27일)는 將軍(吉宗)의 말을 인용한 것은, 조선이 일본을 유교문화로 교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우니, 일본의 특

21) 矢沢康祐 (1969) 「江戸時代における日本人の朝鮮観につい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6輯 p.22

22) 1719년 신유한 『海游錄』 下 〈聞見雜錄〉 p.68-70

성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1764년 통신사 정사 조엄도 사행 결과를 반성하며, 통신사의 문화교린외교는 효과가 적은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다만 천 년 동안 더러움에 물든 풍속만은 큰 역량 큰 안목이 아니면 창출간에 변경하기 어려울 터이니 구구한 詩語를 가지고 앞서 보일 징조를 잡을 수는 없으리라”며 그간의 헛된 노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도 같은 시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²³⁾

2. 새로운 시각

예란 이전에 일본을 방문한 사신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문장으로 외교 활동을 잘 수행하였다며 사행록에도 自畫自讚격으로 시문창화를 주로 수록하였으나, 사행이 거듭됨에 따라 일본에서 이루어진 필담 내용보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문물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대체로 사신들은 일본의 제도나 문물은 배울 것이 없다고 비하하였지만,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利用厚生할 만한 것은 적극적으로 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世宗 때 통신사 朴瑞生이 水車 모양을 그려와 보고한 것이었다.²⁴⁾ 朴瑞生이 건의한 水車는 빠르게 흐르는 물의 힘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 물을 퍼올리는 장치로, 水利시설이 부족하여 가뭄을 타는 논에는 더 없이 좋은 장치였다. 일본 中世 수필 『徒然草』(51段)에 “水車を 잘 만든다고 소문난 宇治지방 사람을 불러다가 만들도록 하였다”고 하였으니, 일본에서는 중세부터 보급되어 관개에 이용되었다. 조정은 水車の 편리함을 알았으나 水車を 널리 보급 시키지는 못하였다. 또 朴瑞生은 목욕 제도의 편리함을 보고 목욕탕 도입도 건의하였으나 시행하였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²⁵⁾

燕行을 체험한 젊은 사대부들이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며 淸의 기술과 문물을 배워서 利用厚生하자고 北學을 외쳤으나, 이용후생의 實學思想이 燕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으며, 통신사들도 北學派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물에 관심을 보였다. 통신사는 외교 임무 수행 외에 일본의 정치나 군사 동향을 살피

23) 1764년 조엄 『海槎日記』 p.315

24) 「세종실록」 11년(1429) 12월 3일

25) 조엄 『海槎日記』 1764년 1월 27일. 趙暉은 水車 2대를 보고 “모양이 물레와 같은데, 물결을 따라 스스로 돌면서 물을 떠서 통에 부어 城中으로 보낸다. 보기에 매우 괴이하므로 사람을 시켜 자세히 그 제도와 모양을 보게 했다”고 하였으니, 朴瑞生의 건의는 호지부지 되어서 趙暉은 水車を 처음 보았던 모양이다. 세종 때(1420) 回禮使로 京都를 다녀온 宋希慶(1376-1446)이 『日本行錄』에 기록하였던 二毛作은 조선 후기에 남부 지방에 정착되었다. 이용후생에 도움이 될 일본의 제도나 문물이 왜 조선 사회에 정착 되지 못하였는지는, 일본 문물의 墾下 이전에 조선의 행정체제나 관료조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論外로 한다.

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으나, 그들은 오래 전부터 利用厚生할 수 있는 일본의 특이한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엄이 대마도에 도착하자마자 고구마 종자 ‘두어 말’을 구하여 부산으로 보내 救荒식물로 널리 보급 시킨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⁶⁾ 또 조엄이 水車를 보고 그림 잘 그리는 변박(卞璞)을 시켜 모양을 模寫하고 원리를 알아오게 한 것이나, 浦口 流失을 방지하기 위해 놓은 竹夫人 모양의 돌 바구니를 유심히 관찰한 것도 이용후생하려는 긍정적인 시각이었다.

사행 초기에는 일본을 夷狄視하며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이 사행록의 전형이었으나, 사행이 정례화 되면서 사신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 사행 초기에 사신들은, 일본 특유의 극진한 접대와 정결하며 화려한 기명(器皿)이 눈에 번쩍 띄었고, 거리가 깨끗하고 번성함에 놀랐다. 대마도를 ‘藩臣의 나라’라고 무시하며 島主에게 절하기조차 거부하는 등, 우월감에 가득 차 있던 申維翰도 대마도의 질서나 문물에 눈을 번쩍 뜨지 않을 수 없었다.

구경하는 남녀가 고기비늘처럼 연달았는데, -<중략>- 앉으면 반드시 꿰어 앉고 서면 반드시 팔장하여 감히 떠들거나 거만스레 보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튀어나와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1719년 신유한 『海游錄』 p.397)

변소에는 모두 띠자리를 깔았는데 안을 두텁게 짜고 가에 선을 둘렀는데 척도가 일정하였다. 문에는 지도리와 자물쇠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매양 한 면마다 큰 문짝 3개를 세워 서로 밀고 당겨 열고 닫게 하였는데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었다. (앞의 책 p.398)

이것은 막부의 秋霜같은 명령으로 접대를 맡은 大名들이 막부의 눈을 의식하여 어쩔 수 없이 기획 연출한 연극이었으나, 사신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행이 정례화 되면서 이러한 막부의 내부 사정을 알게 되었으나, 사신들은 막부의 극진한 접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사신들을 또 놀라게 한 것은 막부 통치의 위력과 엄중한 법령으로 정착된 질서 의식이었다. 사행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손히 길가에 앉아 있었고, 십 리나 되는 먼 거리에 물을 뿌려 먼지 하나 나지 않게 하였으며, 밤새 눈이 내린 길에 대(竹)를 덮어서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고, 하천에는 거금을 들여 임시로 舟橋를 설치하였으니 막부 위력과 물력의 풍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²⁷⁾ 거기다가 국가의 조직망도 놀라웠다. 부산에서 대마도로

26) 앞의 책, 6월 18일

27) 1624년 姜弘重 『東槎錄』 P.225

보낸 사신들의 집안 편지가 ‘飛船’을 타고 50일도 못 되어 6천리 해외까지 하나의 유실도 없이 사행 중에 전해졌으니, “왜인도 또한 성실하고 믿음이 있었다”고 감탄하였다.²⁸⁾ 또 시장에는 물화가 가득하였고 여염에는 곡식이 널려 있었으니, 백성의 부유함과 풍성함도 조선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4차 사행(1636년) 때 김세렴은 일본 풍속의 부정적인 면(娼女 男色 割腹 混浴 등)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의 긍정적인 면도 보며 사행에서 참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들의 성질은 경박하고 영리하나, 또한 참다운 태도가 있다. 쉽게 남을 믿고 언어가 곡진하며 兒女처럼 온화하고 인정 있으며, 쉽게 성을 내며, 호협하여 절개를 숭상한다. 대개 深處의 왜인은 날카롭고 독하기는 심한 편이나 그다지 巧詐스럽지 않고, 대마도의 왜인은 날카롭고 독하기는 모자라되 교사가 많다.²⁹⁾

그러나 사신들은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선입견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한 시각으로 흔히 쓴 표현이 “蠻夷 島夷”였으며, 일본인을 모두 ‘섬나라 오랑캐’로 卑下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대마도인과 ‘內地人’ 혹은 ‘深處人’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한 통속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막부가 사행을 뒤에서 조종하고, 대마도는 앞에서 움직이는 下手人 정도로 여겨왔었다. 그러나 1764년 사행 귀환 길에 서기 元重拳는 대마도에 머물면서, 교린외교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대마도와 ‘內地’를 구별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대마도의 풍속이 흉악하고 위태로운데 저 內地로부터의 거리가 몹시 멀고 깊은 바다로 가로 막혀 있으니 도리어 우리나라의 변방에 익숙하게 처하고 항상 동래의 왜관에 살아 우리의 풍속에 익숙함이 오히려 그 나라의 내지에 대해서보다 더함이 있다. 또 동래의 吏卒들이 그들과 더불어 기회를 타고 이익을 사냥함에 익숙하여 하지 않는 말이 없고 새지 않는 일이 없으니 우리나라를 좀먹어 해를 끼치며 우리나라의 재물을 다하여 없애는 자들은 반드시 오로지 대마도인들에게서만 연유하는 것은 아니다. (元重拳 『乘槎錄』 p.529)

또한 저 나라 내지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드럽고 착하며 자애롭고 진실되어 부인 여자의 어짊이 있으니, 우리가 만약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다하고 정성스럽고 화목하게 하고, 교만하며 꾸미는 뜻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저들은

28) 앞의 책. P.248

29) 1636년 金世濂 『海槎錄』 P.167

모두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마음을 다 실어올 것이며 정성스럽고 아름다움을 토하여 내어 놓을 것이다. (앞의 책 p.536)

元重挙가 보기에, 교린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마도에 있었고, 그 다음으로 ‘동래의 吏卒들’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사행이 없다면 대마도가 더 날뛰며 무역에 폭리를 취하며 남변을 어지럽힐 것이니, 막부와 왕래하며 대마도를 견제하는 것이 사행의 큰 덕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内地’의 일본인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好感을 가지게 되었고, 먼저 우리의 잘못부터 고칠 것을 건의한 것은, 그간 사행에서 얻은 새로운 시각이라 할 수 있겠다.

3. 사행의 실상과 개혁의 목소리

사행 인원은 보통 400-500여 명이나 되었으며 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인배’들을 몇 명의 군관들이 통솔하고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또 많은 인원이 움직였으므로 사행 비용이 많이 들었고, 체면 치레를 위해 가져가야 할 예단도 많았다. 또 사행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사 와야 할 물품도 많았으므로 조정은 이러한 비용 염출에 고민하다가, 중국 비단을 일본에 가져가 팔아서 북변 방위에 필요한 조총을 사오려고 계획한 적도 있었고, 예단 인삼이 부족하여 막부 고위층에 줄 예단을 줄이려고 교섭한 적도 있었다.³⁰⁾

또 사행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중도에 支供과 전별연을 맡은 지방에 끼치는 민폐도 적지 않았다. 통신사가 서울을 떠날 때 사람들은 대개 한강까지 전송하였지만, 이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鳥嶺을 앞둔 충주까지 따라가 이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도 함께 숙식을 하였으니 중도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1764년 사행 때는 부산에서 준비와 기상 관계로 한 달 이상 출항을 기다렸는데, 그 비용을 영남 71 고을에 부담 시켜서 그 폐단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³¹⁾ 사행이 거듭됨에 따라 폐단도 많아져서, 이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많아졌는데, 조선이 사행에서 얻는 이익과 폐단을 元重挙(1719-1790)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³²⁾

[긍정적 평가(五利)]

- 一. 교린을 통해 변경을 편안하게 한다.
- 二. 지세와 풍속을 살펴서, 평소에는 인도하고 유사시는 제압할 수 있다.

30) 「인조 실록」 2년 4월 24일

31) “이번 행차에 支供할 假家를 마련하고 가마 솔 그릇 등을 갖추는데 1일의 賈가 백여 금이 넘게 들었다”(1764년 조엄 『海槎日記』 9월 21일)

32) 1764년 『乘槎錄』 p.529-532

- 三. 막부와 왕래함으로써 대마도를 제어할 수 있다.
- 四. 사행 왕래로 배의 사용을 익힐 수 있다.
- 五. 일본을 禮俗의 아름다움으로 이끌면 전쟁의 위협이 없어질 것이다.

[사행의 폐단(三弊)]

- 一. 사행 인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이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크다.
- 二. 장사치 역관들의 병폐가 크고, 이익은 대마도에 돌아간다.
- 三. 사행에서 매매 행위는 나라의 수치다.

사행록에서 사소한 부분을 비판한 예는 있었으나, 이와 같이 사행의 득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예는 없었다. 이러한 평가와 비판은 사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자는 의견이었다. 1764년 사행으로 통신사가 11번째나 되었음으로, 正使 趙曦이 『海槎日記』에서 그간의 사행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며 사행에 대한 평가와 정리를 기록한 것처럼, 書記 元重拳는 사행록을 종합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사행의 득실을 논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元重拳 의견의 요점은 사행 인원을 줄일 것과 사행원이 저지르는 문제들이었다. 일본 쪽의 문제는 대마도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다는 것이었으니, 前行을 반성의 자료로 삼아, 문제가 많은 무역을 줄이고 교린에 충실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元重拳는 사행 인원 축소와 선발에 대하여 구체적인 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대마도로 하여금 江戶와 절충하여 절목을 정하게 하고, 三使를 2명으로 줄이고, 수행원이 2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사행원(文士 名武 訳官 良医) 선발에는 실력과 명망을 갖춘 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³³⁾

특히, 역관들 중에는 倭語 실력이 변변치 않은 자가 많았다. 그러나 역관은 일본 사정에 밝았고, 왜관 근무나 사행 경험으로 일본에 顔面이 많아, 사신의 耳目口鼻 역할을 하였으나, 이러한 역할을 기화로 ‘염불보다 젓밥’에 관심이 많아서, 사신은 그들을 “역관배 역설(訳舌)”이라 부르며 불신하였다. 小利에 혈안이 된 역관들이 사행을 이용하여 대마도와 결탁하여 재물을 탐하였지만, 이들이 세부적인 절충이나 막후 교섭을 도맡아 사행의 손발 역할을 하였음으로, 元重拳는 역관들의 부정을 척결하지 않는 폐단을 심각하게 보았다.³⁴⁾

이전부터 사행의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4차 사행(1636년) 때는

33) 앞의 책 p.535-538

34) 앞의 책 p.521

‘告示’를 발표하며 예절을 강조하고 밀무역을 단속하려 하였으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사행 제도를 개혁하려고 노력한 것이 1764년 정사 조엄이었다. 조엄은 출발에 앞서 「원역에게 효유한 글(曉諭員役文)」 「금제조(禁制條)」 「약속조(約束條)」를 만들어 모든 원역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諺文’(한글)으로도 썼으며, 하인들이 일본에서 흔히 일으키는 충돌이나 말썽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 체면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사행을 따라온 하인들의 무질서로 사신들은 골머리를 앓았고, 이들이 조선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⁵⁾ 또 하인들의 無禮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보고 대마도주가 사신에게 편지를 보내어 단속을 요청하였으니, ‘上國’을 자처하는 조선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³⁶⁾

특히 「금제조(禁制條)」에서는 인삼 비단 軍器 국가기밀이나 書冊 등의 밀매를 엄히 단속한다 하였고, 무례하고 공경하지 못한 자도 중곤(重棍)으로 다스린다고 엄명하였다. 「약속조(約束條)」도 사행 중에 엄숙 규율 질서 예절을 강조하였지만, 귀환 중 大坂에서 都訓導 崔天宗이 대마도 伝語官에게 被殺당하여 한 달여 귀국을 늦춘 사건까지 났었으니, 한 몫 잡으려는 역관배와 무례하고 무질서한 하인배들을 대거 인솔하는 사행 길은 썩을 지고 불 옆을 지나는 것처럼 불안한 여로였다.

이와 같이 정사 조엄이 원역들에게 질서와 예의를 강조하며 매매를 금한 것과, 서기 원중거가 인원 감축과 사행원이 저지르는 문제점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江戸로 가는 마지막 사행이었던 11번째 사행을 마치며, 두 사람은 그간 절실히 공감하였던 문제점과 교린외교에서 보여준 우리의 잘못을 먼저 고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前行 경험에서 얻은 반성을 통한 새로운 시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각은 燕行을 다녀온 젊은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李德懋(1741-1793)는 『蜻蛉国志』라는 日本에 관한 저술을 편찬하였다.

이들의 시각을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사행에서 보인 우리의 자세를 반성하며 사행원들의 태도를 개선하려는 守勢的인 자세에 치우친 나머지, 일본 경제의 발달이나 막부 체제와 武家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대마도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시각의 限界이며 흠이었다.

35) “통신사를 구경하는 그곳 사람들은 아이들까지도 줄을 지어 부복하고 종일토록 아무 말도 없었는데, 우리 하인들은 아무리 금하여도 떠드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저 오랑캐에 비해 볼 때 또한 부끄러운 일이었다” (1624년 姜弘重 『東槎錄』 10월 10일)

36) 1682년 洪禹載 『東槎錄』 6월 29일

四. 結論

조선은 개국 초부터 일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나, 임진왜란이란 兵禍를 당하여 국가 기반이 흔들렸고, 결국에는 일본의 병탄을 막지 못하였다. 이러한 데는 일본을 제대로 보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있다.

왜란 후 조선이 파견한 통신사는 일본을 偵探하러 보낸 공식적인 ‘諫者’이었으나, 그들의 관찰은 前代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뿌리 깊은 先入見과 倭에 대한 공포심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先入見은 문화적 우월감으로 변질되어, 倭를 夷狄視하거나 倭의 야만적인 문화를 지적하는 것으로 카타르시스로 삼았다. 간혹 통신사가 일본의 발달한 文物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조선은 이것을 받아들여 利用厚生하는 데는 인색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이 깊이 뿌리 박혀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통신사 제도 개혁을 위한 건의가 사행록으로 보고되었으나, 조정의 움직임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결국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큰 흐름에 묻혀버렸을 때, 통신사 파견은 제도에 지나지 않았고, 사행록은 형식적인 보고서가 되어버렸다.

전에도 몇몇 사행원이 일본에 대한 열린 시각으로 일본의 장점을 소개하였으며, 1764년의 正使 조엄과 書記 원중거의 일본 관찰은 조선 후기 지식인 사회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다. 正使 조엄과 書記 원중거가 지적한 사행의 문제점은 우리 쪽에 많았으며, 일본인은 야만스럽지 않았고 착한 심성을 지닌 사람들로 보였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사행 제도를 개혁하여, 사행원들이 私心을 버리고 질서 있게 교류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는 뼈아픈 반성이었고, 그간의 병폐를 바로 잡을 수 있는 契機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實事求是의 학풍과 영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일본 見聞은 실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쳐, 이덕무의 일본연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³⁷⁾ 통신사 연구는 제도나 문화교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뜻있는 사행원의 새로운 시각이 양국관계 개선에 중요한 지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양국관계에도 이러한 시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7) 정장식(2004) 「英祖代 통신사와 이덕무의 일본연구」 일본문화학회 23집 일본문화학회 p.205-229

【参考文献】

- 김경숙 역(2006) 『乘槎錄』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 민족문화추진회 편(1986) 『국역 해행총재』
- 박재금 「원증거의 『和国志』에 나타난 일본인식」 사행록연구총서10. p.31-64
- 이을호 역 『海東諸国記』 大洋書籍 p.31-33
- 이중환 저 이익성 역(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p.66
- 조영빈 정두희(1981) 「조선초기 支配層의 日本觀」 전북대 인문논총 9. p.24
- 하우봉(2008) 「원증거의 일본인식」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7. p.323-397
- 한일관계사학회 편(2001) 『交隣提醒』 국학자료원 p.45-46
- 村井章介(1993) 『中世倭人伝』 岩波新書 p.34-35
- 旧参謀本部編纂(1995) 『日本の戦史 朝鮮の役』 徳間書店 p.431-433
- 矢沢康祐 「江戸時代における日本人の朝鮮觀につい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6輯 p.22

要 旨

朝鮮は、開国初から日本に関心と警戒を緩めなかったが、倭乱の惨憺たる兵禍の後、結局は併呑を免れなかった。その原因は、日本を正しく評価しなかったことにあると厳しい反省の声がある。朝鮮が日本に派遣した通信使は、日本を偵探する目的で派遣した公式の「諜者」であったが、その観察には前代からの根深い先入観と恐怖心を持っていた。その先入観は文化的な優越感に変質された。たまには、通信使が日本の進んだ文物や制度を紹介もしたが、朝鮮はこれを受け入れて民生の福利厚生に利用することには躍起にならなかった。

1764年の正使趙曦と書記元重挙の日本観察は、新鮮な視角であった。正使と書記は、使行での多くの問題は朝鮮側にあり、日本人の心は優しく、野蛮ではないと認識した。それで、日本を新しい視角で観察して、使行員は私心を捨て、秩序を守って交流すべきだと提案した。

このような視角は、当時の朝鮮社会で起こっていた实事求是の学風で、このような日本見聞は実学者にも影響を及ぼし、その後の日本研究に新鮮な刺激と数多い情報を提供した。

キーワード：倭 倭寇 恐怖心 先入観 優越感 趙曦 元重挙 新しい視角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